

# 남원-경덕진시, 우호 교류의향서 체결

### 이순택 남원 부시장 “교류협력과 우호 증진으로 상생발전 관계가 활짝 피어나기를”

남원시는 지난 18일, 이순택 남원시 부시장, 최소항 중국 강서성 경덕진시 부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화상회의로 상생발전과 공동번영을 위한 우호 교류의향서를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양 도시는 작년 10월, 남원시 대표단의 경덕진시 국제도자박람회 참가해 금년 5월 경덕진시 공연단의 제94회

춘향제 내방 등 상호교류를 활발히 진행해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우호 도시 관계 설정을 위한 첫발을 내딛게 된 것이다.

경덕진시는 송나라 때부터 크게 성장한 독자적인 도자기 생산지로서 '도자기의 고향'이라 불릴 만큼 전 세계에 엄청난 양의 도자기를 수출하고 있으며, 개교 110년이 넘는 경덕진도자

대학, 중국 도자기 박물관 등이 있는 세계적인 요업도시로 알려진 곳이다. 남원시 역시 심수관가를 통한 일본 사쓰마 도자기의 발상지로서 430년의 유서 깊은 도자 문화로 시민도에대학 운영, 매년 국제도예캠프 개최, 국립도자전시관 건립 추진 등으로 도자 문화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으며, 양 도시는 이후에도 실질적인 교류를 이어가면서 수시 실무협의를 거쳐 시, 장소, 방식 등을 결정할 후 올해 하반기에 정식으로 우호 교류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최소항 경덕진시 부시장은 “도자 문화에 있어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지닌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양 도시가 이를 매개로 더 나아가 경제, 관광 등 여러 분야에서도 커다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 관계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이순택 남원시 부시장은 “양 도시가 본격적인 교류의 장을 열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오늘 소중한 인연을 맺는 시작을 알린 만큼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교류협력과 우호 증진으로 상생발전 관계가 활짝 피어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남원=김기우 기자



남원시는 지난 18일, 이순택 남원시 부시장, 최소항 중국 강서성 경덕진시 부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우호교류의향서를 체결했다.

# 전동보조기기 지원에 이어 노인 이동 안전 책임진다

### 순창군, 전동보조기기 지원 대상 안전교육 시행

순창군이 지난해 전국 최초로 노인 전동보조기기를 지원한 데 이어 전동보조기기 안전교육까지 나서며 노인들의 안전 지킴이로서 발 벗고 나섰다.

군은 지난 18일 순창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순창읍 전동보조기기(의료용 스쿠터, 휠체어) 보조금 지원대상자 51명을 시작으로, 10회에 걸쳐 6주 동안 총 466명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매년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전국 최초로 지원대상자를 소극적인 노인까지 확대해 전동보조기기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전동보조기기 사용이 늘어나면서 안전사고의 위험이 예상되어,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안전교육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이번 교육은 각 읍면을 순회하며 진행되며, 도로교통공단과 교통문화연수원의 전문 강사를 초빙해 교육의 질을 높였다. 교육 내용은 전동보조기기의 기본 조작법, 교통법규 이해, 안전운전 수칙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지원 대상자들은 기기의 효율적인 사용법을 익히고, 실제 도로 상황에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단순한 이론 교육을 넘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문 강사의 지도 하에 기본 조작법부터 인도에서의 안전한 운행 방법 등 생활밀착형 사례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군은 지난 18일 순창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순창읍 전동보조기기 보조금 지원대상자 51명을 시작으로, 6주 동안 총 466명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하고 있다.

# 신기술 한우 접이식 보정틀 장치 보급

### 임실군, 한우인공수정 예방접종 등 농업인 안전사고 예방

임실군이 지역 농업인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신기술이 접목된 한우 접이식 보정틀 장치를 보급한다.

한우 접이식 보정틀 장치는 한우 인공수정과 예방접종 등 개체 관리 시 작업 편리성을 높일 뿐 아니라 농업인 안전사고 예방에 효과적인 장치다. 이에 따라 군은 소 접이식 보정틀 장치를 관내 한우 축사에 보급하여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일반적으로 인공수정이나 예방접종을 할 때 스탠치온(자동목걸이)에 소머리 부분만 고정하여 작업하거나, 밧줄을 사용하여 뿔을 보정한 후 암소를 고정하는 식으로 작업하는 농가가 대부분이다.

때문에 소의 뒷부분이 고정되지 않아 갑작스러운 행동으로부터 작업자들이 부상을 입는 경우가 빈번히 일어난다는 실정이다.

이 같은 사고는 소와 작업자에게 상호 스트레스를 초래하여 생산성 저하와 소독 감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올해 시범사업으로 보급한 접이식 보정틀은 국립축산과학원에서 개발,

우사 칸막이에 부착하여 접이식으로 되어 있어 필요시 펼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이는 별도의 공간을 차지하지 않고, 개체 관리 시 장소를 이동할 필요가 없어 관리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소의 몸을 전체적으로 보정하여 인공수정과 예방접종, 발굽 관리 등을 안전하게 할 수 있고, 정밀한 개체 관리가 가능하여 번식률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축사에서 인공수정 등 작업을 할 때는 무엇보다도 작업자 스스로 주의 기울여 빈번하게 일어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심 민 군수는 “신기술을 도입함으로써 우수한 한우생산에 도움이 되고, 농업인들의 안전사고 예방에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가축 생산성 향상과 축산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 신기술 시범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보급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임실군 종합경기장

(사진=임실군청 제공)

# 임실군 종합경기장, 군 장병 체력 훈련 등 인기 급부상

임실군 종합경기장이 군 장병들의 체력 증진 향상과 각종 훈련 등에 좋은 장소로 35사단 및 2대대 군 장병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임실군 종합경기장은 2006년 9월에 준공된 시설로 연면적 7만8,035㎡ 규모에 축구장, 족구장, 테니스장, 풋살장 등 양질의 체육시설을 갖추고 있다. 장병들의 체력 증진과 각종 훈련에 무료로 애용되고 있으며, 2024년 현재까지 18여 회 1,000여명이 애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 6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35사단 7733-2대대 장병 약 350명은 부대 체육행사로 임실군 생활체육공원(종합경기장)을 방문해 다양한

체육활동을 즐겼다. 이러한 장병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군에서의 지원을 통해 임실군 생활체육공원은 장병들의 건강과 복무 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등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심 민 군수는 “35사단은 임실군 지역의 상생 파트너로, 앞으로도 군부대와 교류, 협력 등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 지역 소식통

### 순창, 통합방위협 회의 개최

순창군은 지난 18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순창군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인 최영일 순창군수 주재로 2024년도 2분기 통합방위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윤성호 7733부대 3대대장, 윤상현 순창경찰서장, 이상일 순창소방서장 등 총 13명의 통합방위협의회의 위원과 15여명의 통합방위 관계자가 참석했다. 회의는 북한의 대남 위협 전망 안보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2분기 통합방위 추진결과 및 3분기 추진계획, 화랑훈련 계획 보고, 순창군 여성예비군 창설예산안 심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마지막으로 통합방위 발전방안에 대한 기관별 발표가 이어졌다.

이번 회의는 다음 달 7월에 있을 화랑훈련을 준비하는 자리로,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등 강도 높은 도발로 인해 국가 안보가 언제 공격받을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실질적 대응하여 비상사태에 적극 대비할 수 있도록 기관 모두가 통합방위 협조체계를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순창=이양원 기자

### 임실, 콩 과제포 전문농업인 육성

임실군이 최근 4H연합회 회원 25명을 대상으로 청용면 육전리에 있는 공동 과제실습 포장(2,970㎡)에서 영농과제 일환으로 더 나은 콩 재배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과제 포장을 조성했다. 공동 과제포 활동은 4H연합회 회원들이 콩 파종부터 수확, 판매 과정까지 직접 실천해 봄으로써 재배 기술, 병해충 방제 등 재배 노하우를 익히고, 영농정보를 교환하며, 농심과 공동체 의식을 배양하는 등 청년농업인들의 농업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공동 과제 포장은 비닐피복 유무에 따른 생육과 수확량을 비교할 수 있도록 조성하여 작업의 효율성, 수량 증대 여부, 논타작물로서 소득향상 기여도 등 다양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영농 시범포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매년 공동 과제포에서 수확한 농작물 판매수익금 일부를 연말 소외된 이웃에게 전달해 왔으며, 올해는 수익금 일부를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으로 기부할 예정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N치즈**

벨기에 출신 지정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